마음 깊이 자기 주인공에다 억겁을 통해 종이 됐던 그 종 문서를 다 태우라

☞ 21면에서 계속

또 사 가느라고 거기에 옹기종기 서서 배에다 싣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배에 있는 쓸개나 모든 걸 끌어내고 피 빼내고 이럭하고선 그것을 다시 말려서, 속에다 짚을 넣어서, 그거 하나만 팔아도 얼만지 모른답니다. 예전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팔려고 내놨는데, 이 거북이는 기가 막혔답니다. 몸을 버렸어도 죽는 마당에 '금방 이 몸을 벗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나.' 하고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죽을지언대 금방 이 모습을 벗었으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선 잠자코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거기에다가 고만 서로 통과를 했답니다. 이 통과는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값을 척 치르더니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장도로다가 목을 그냥 팍 찌르는 순간 그것은 그대로 그냥 죽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이 왜 이렇게 살생을 하십니까?" 하니까 "살생이 아니니라. 나한테 이렇게 몸을 벗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고초를 받는다면 그 어찌 살생이 되겠는가? 이 옷을 벗어 버리고 훨훨 날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칼을 빼더니마는 피를 씻어서 다시 넣으면서 "여보게, 요다음에 만나세. 자네 만날 길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모르나 꼭 만날 것이네." 하고선 떠나거든.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거북이더러 "자네, 요다음에 만나세." 하니 이게 무슨 이치냐 이겁니다. 그러니 별 미친 사람 다 봤다고 하면서 떠났겠죠.

그런데 그 무역 상인 부부를 보는 순간 거기에 태어나겠다고 생각을 한 거만큼은 좋은데, 태어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을 보는 순간 참, '저런 모습이라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마침내 그렇게 옷을 벗고선 그분들에게 태어났답니다. 그 태어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갈공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십 년 탑을 공을 들여서 아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공을 들이지 않고 객담하듯 그냥 바깥으로 나도니 공덕이 될 수가 있나? 바깥으로 왜 돕니까? 내가 항상 말끝마다 마음으로 돌아가고, 설법을 해도 마음으로 결국엔 돌아가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꼭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니까? 이 모두가, 어떠한 낮은 동물이든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개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갖는다면 모습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떠한 모습을 했든 모습이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한 찰나 내가 모습을 바꾸려면 모습을 바꿀 수 있건마는.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인간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 이 인간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벗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몸을 받아 가지고 그 길 없는 길을 얼마나 헤매면서 또는 몸 없는 몸을, 공한 몸을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아팠습니까? 그러니 그런 도리를 우리가 연쇄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너무도 우리와 똑같다는 얘깁니다. 우리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쳐 나온 과거를 본다면 한 찰나에 지금 현재지마는, 우리가 모르고 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왔을 때에….

예전의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뼈다귀에 절을 하십니까?" 하니 "그것이 내 형제인지도 모르고 내 부모인지도 모르고, 모두가 내 형제 내 부모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니 내 부모의 뼈다귀도 될 수 있고 내 할머니의 뼈다귀도 될 수 있고 내 형제의 뼈다귀도 될 수 있으니 어느 뼈다귀가 남의 뼈다귀라고 말하겠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제자들은 "미처 이런 도리를 몰랐습니다." 하고선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냥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이랬듯이 우리는 그 도리를 좀 더 알아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실 때에마다 안 하시고, 길에서도 한 사람 만나든 두 사람 만나든 "사람이라면 이런 도리를 알아야 하노라." 하시면서 그렇게 마다 안 하시고 설법을 하셨다는 그 이치를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고마운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이 뜻이 이러한 도리이거늘…,

우리는 모두가 남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저렇게 앉아 계시는 저분이 예전에,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와 더불어 같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자손들을 낳아서 그렇게 내 목숨이 앗아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아리따운 마음을 먹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겼고 스스로 자비가 나오고 스스로 사랑이 나오고, 불쌍한 사람을 길을 가다 만나면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자연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고 우리가 활용을 할 줄 모른다면 억겁을 통해서 진화되면서 모습이 항상 윤회에 끌려다니면서, 유전에 끌려다니면서, 인연법에 얽매이면서 이 도리를 어떻게 다 면하리까?

우리가 억겁을 통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금방 한 식구로 살다가, 부모로 살다가 벌써 조카가 되고 조카로 살다가 벌써 딴 집으로 또 태어나고 그런다면 이거는 도대체 언제 적의 부모고 언제 적의 자식이고, 그냥 그대로 내 형제 내 부모,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뒤섞인 이런 부모 형제인데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뒤섞이고 뒤섞이고 또 뒤섞이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우리의 몸뚱이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정맥 동맥에서 피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어찌 정맥에만 있고 동맥에만 있겠습니까. 온 누리에, 온 누리라는 것은 이 온몸에, 손끝 발끝마다 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 몸뚱이를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피가 다르고 어느 피가 정맥이고 어느 피가 동맥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도리를 알려면 마음 깊이 자기 주인공에다 억겁을 통해서 종이 됐던 그 문서를 다 태우시라 이겁니다.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 가환이 있는 거 가난한 거, 괴로운 거 아픈 거 쓰린 거 모두를 내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진짜로 믿으신다면, 그렇게 물러서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신다면, 안 되는 것도 '바로 당신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고서 놓으신다면 바로 다시 돌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조급하게 안 됐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면 자기를 못 믿는 거지.

누가 뭐, 부처님이 오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응?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세상이 있는 거고, 살림이 있는 거고,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이 세상 모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만법이 나고 자기로 인해서 만법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깊이깊이 사무치게 생각하시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 나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녹음 안됨) 귀중한 몸 벗기 전에…. 하다못해 산중 깊이 들어 있는 짐승들도 마음공부를 하고, 하다못해 물속에 들어 있는 생물들도 마음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늘,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그 뜻과 더불어 한자리에 끄달리지 않고 사실 수 있는 그 극락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극락도 욕심내지 마시고 빨리하려고도 욕심내지 마시고, 언제나 이런 거는 있어야 하죠. 꾸준히 모든 걸, 들이고 내는 거, 하나 움죽거리는 것도 꾸준히 관하시면서….

이건 송장이에요. 여기에서 혼백만 빠지면 이건 송장이야. 이 성품이 다 이걸 운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품이 있기 이전 바로 참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품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린다는 걸 여러분이 직감으로 잘 아셔야 돼요. 자기 떠나서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겨서 자기가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거죠.

여러분의 몸뚱이가 바로 부처님의 법당이요, 그 법당 안에는 여러분의 자성, 자부처가 바로 거기 도사리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쥐려야 쥘 수도 없고, 보려야 볼 수도 없고,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건만 어떻게 그렇게 묘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자동적으로 움죽거리게 하시나. 그러면서도 천차만별로 고정되게 있지 않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수많은 일체 부처, 일체 중생, 유생 무생이 다 한꺼번에 한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나투어도 여러분이 그 이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고정되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체 부처가, 일체 법신, 화신, 보신이 다 내 한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산신이 따로 있고 용왕이 따로 있고 모든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조상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저렇게 앉아 계시는 저분이 예전에,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와 더불어 같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자손들을 낳아서 그렇게 내 목숨이 앗아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아리따운 마음을 먹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겼고 스스로 자비가 나오고 스스로 사랑이 나오고, 불쌍한 사람을 길을 가다 만나면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자연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한 이치도 있듯이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는 헛믿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믿으러 다닌다 할지라도 믿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는 길을 인도받는 거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공,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고 그래야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자기를 잘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고 부모를 배신하는 거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자부처는, 자기 안에 들어 있는 자부처는 법의 조상입니다. 자기 육신을 진화시키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지 때에 따라서는 참, 아까 얘기했듯이 칼로 퍽 찔러서 죽여도 그것은 자비로써 살린 거지만, 도인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명만 쳤다 뿐이지 바로 살린 것이지마는 여러분은 그러한 이치도 못 되면서 만약에 남의 생명을 앗아 간다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수껏 살아야 한다. 나한테 오지 않는 걸 억지로 개천을 건너뛰어서까지 뺏으려고 한다면 개천에 빠진다. 이런 문제들이 왕왕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어느 정도껏 두라는 얘깁니다. 중도에다 항상 두고, 항상 중도에 두되 중도에 두는 거마저도 자기 주인공에 맡기면서 선하고 착실하게, 좀 더 겸손하고 자비하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항상 좋은 말은 남한테 해 주고 언짢은 말은, 신경 쓸 일은 얘기하지 말고 안으로 굴리고, 남편하고도 서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이틀, 열흘, 한 달을 자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안으로 굴려서,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리고 바로 내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가서 자래도 안 자. 그런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만 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서 참복락을 이루는 거지, 그런 도릴 모르고 어떻게 복락을 이루고 공덕을 이루면서 무심으로서의 그 광대무변한 법을 들이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하다못해 산중 깊이 들어 있는 짐승들도 마음공부를 하고,
물속에 들어 있는 생물들도 마음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늘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그 뜻과 더불어 한자리에
끄달리지 않고 사실 수 있는 그 극락을 모르십니까?

※위 법문은 1986년 3월 25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